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대정부 질문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뉴시스

대정부질문·청문회 키워드 ‘추장관 아들’

오늘 대정부질문, 16일 청문회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의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야당에서 추미에 장관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 여당은 방어하는 형세다. 여야가 다투는 쟁점은 추 장관 자녀 서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병가 사용 기록의 위법성 여부다.

서모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를 냈다.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이후 6월 23일부터 9일간 2차 병가에 이어 4일간 개인 휴가까지 쓴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국민의힘

국방부 ‘문제없다’ 발표 입장문에 “무리한 해석” 특혜의혹 강력비판

더불어민주당 “문제 없는것을 있는것으로 오해”

이 과정에서 서씨가 2차 병가를 구두 형태로 허가받았고, 이를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분야별 대정부질문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대정부질문은 정치(14일), 외교·통일·안보(15일), 경제(16일), 교육·사회·문화(17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는 16일과 18일 각각 열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여야가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무리한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관련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당 유튜브 채널 ‘썸’ 라이브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게 이 사건의 골자’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실명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당직 사병 단독으로 해당 의혹에 대해 제보할 수 없는 만큼 공범이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도중 나온 것이다. 다만 황 의원은 ‘좌표 찍기’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당직사병 실명은 지웠다.

한편, 추 장관은 13일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R&D 투자유치 희망 기술혁신기업 공모

산업부, 20곳 선정 11월 IR 기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술혁신기업을 14일~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 중 20개 혁신기업을 선정, 올해 11월 투자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최종 선정 기업은 투자운용사로부터 기업당 약 30억 원 내외 규모로 투자받도록 할 계획이다.

획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올해 결성 예정인 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전문 투자하는 1600억 원 규모의 기술혁신펀드의 투자대상기업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개모집을 토대로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투자운용사 등의 두 차례 서면심사를 거쳐 투자설명회에 참가할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투자펀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카투사-일반병사, 탈영양형 불공정 논란

카투사 11명 대다수 ‘무혐의’ 처벌 육해공군, 징역1년 집유2년 ‘공식’

“병역 평등성·공정성 불식 확산에 복무염증·군율붕괴 가속화 우려”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특혜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병역과 군율의 공정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재익 의원(국민의힘)이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무이탈(탈영) 혐의로 입건된 카투사 병은 총 11명이었고 이중 대다수는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만 받았다.

군 형법상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기소가된 것은 지난해 초 한·미 양군의 지휘공백이 발생하는 빈틈을 이용해 수십일 간 집에서 머물다 적발된 주한미군 55헌병중대 소속 병장 5명 뿐이다.

반면 일반 육해공군 병은 마치 공식을 정해둔 것처럼 통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카투사 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카투사 병들이 받은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을 미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2년이 지난 뒤 기소가 면해지는 조치다.

익명의 군 지휘관은 “카투사도 일반 병들도 모두 국군임에도 잘못에 대한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2사단 소속 카투사 병이 미군과 함께 공중강습훈련에 앞서 레펠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추 장관 아들의 병가연장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점을 꼭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영관급 예비역은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휘관은 올바른 지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병역의 평등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복무염증을 비롯해 군율이 붕괴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과거부터 병역에 대한 불공정이란 인식이 쌓여온 상황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는 현 정부가 이러한 가치에 흠집을 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 조치에 대해 합법하다는 목소리만 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

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서씨 휴가연장은 규정상 문제없다면서도 관련 증명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당원들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연장을 무리하게 변론하다 빈축을 샀다.

국회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같은당 금태섭 전 의원은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앞다퉈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황 의원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육군 일병 소집체제로 병역을 마쳤다.

/문형철 기자 captinm@

韓 차세대 소·부·장 ‘그래핀’ 국제표준 등재

산업부, 생산·개발역량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소재인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에 대한 국제표준 등재에 성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한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이 5년여의 노력 끝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실리콘, 구리 등을 대체해 배터리 전극 코팅, 수처리 필터, 방열재료, 초경량 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흑연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박리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작은 연상모양의 그래핀이 1~2층(두께 2nm 이하) 적층된 구조다.

벌집모양의 평면구조로 결합된 탄소(C)로 이뤄져, 전기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뛰어나고, 금속에 비해 200배 단단하며, 1000배 이상 가벼운 특성을 갖는다.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은 소재, 부품기업에게는 생산한 소재에 대한 객관적 사양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 배터리, 반도체, 환경필터 등 응용분야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소재, 부품 산업의 생산·개발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표준으로 등

재된 내용은 전극 제작, 측정 시료의 양, 시료준비법, 전기 전도도 측정방법과 데이터 해석에 대한 상세 가이드, 측정사례 등이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표원이 지원하는 국제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나노기술원, 성균관대, 전자통신연구원, 표준협회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도 그래핀과 은 나노 물질 등 나노 소재 분야에서 IEC 국제표준 2종을 등재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국제표준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첨단소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용수 기자 hys@

해수부 ‘온라인 수산박람회’ 개최

오늘부터 5일간 전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산물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4일~18일까지 온라인 수산박람회인 ‘2020 KOREAN SEAFOOD ON-LINE EXPO’를 개최한다.

그간 해수부는 매년 중국, 미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개최되는 수산박람회 참가와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가 취

소되거나 해외 입·출국 제약이 많아 참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올하는 온라인상에서 해외 수입상과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를 연계하는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해수부는 대면으로 수출 상담과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재 여건을 감안, 국내 업체 78개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K-seafood 전시관’을 운영, 박람회 기간 중 10개 해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바이어 90개사 간 1대 1 영상 수출



온라인 수산박람회 메인 페이지 /해수부

상담회를 집중 추진한다.

온라인 수산박람회 누리집(www.k-seafoodtrade.kr)에서는 K-FISH 브랜드 홍보관, 가공수산물관, 냉장·냉동 수산물관 등 총 6개의 전시관이 운영된다.

/한용수 기자